'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축제(5월 16일~6월 22일)' 12개 참여작품 확정

재미와 감동 동시에… 공연장이 들썩인다

'비밥' '아리랑파티' '인수화풍' 등 기대

작품 수 줄고 해외참가작 없어 아쉬움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축제' 일정과 참가작이 확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2개 참여 작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교향악단 등 각 개별 단체가 일정 대로 진행중인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작품 5개를 '축제'로 묶어 형식적인 숫자만 늘어났지 실제적으로는 작품 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행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타지역브랜드 3개 작품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공연 작품들이 지역민들을 찾아온다. '난타', '점프' 등을 연출한 최철기 사단이 만든 '비밥'은 일본 스시, 중국 누들, 이태리 피자 등 맛있는 음식에 비트박스, 아카펠라, 비보잉 등 여러 장르를 버무린 유쾌한 퍼포먼스 뮤지컬이다.

아리랑을 배경으로 한국전통 타악과 춤, 태권도, 비보이가 어우러진 최소리의 '아리랑파티'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 전통의 미학과 연희 양식으로 풀어낸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은 명품 연극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브랜드 4개 작품

올해로 3회째 무대에 올리는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희망의 노래'는 70~80년대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공연한다.

지난해 제21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안무상, 연기상을 휩쓴 김미선 무용단의 '자메뷰'도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

5·18의 시대적·역사적 진정성을 되묻는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의 '광주 비나리/광주 판打志(판타지)', 화려한 퍼포먼스로 신명을 선사할 얼쑤의 '인수화풍(人水火風)'이 무대에 오른다.

◇시립예술단 5개 작품

5개 광주시립예술단의 작품들이 올해 브랜드공연에 포함됐다. 시립무용단은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 일대기를 그린 발레 '명성황후'를, 시립국극단은 판소리 심청가를 명품 창극으로 재탄생시킨 창작 창극 '화무(化舞) 심청'을 무대에 올린다.

시립교향악단의 '베르디,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원작으로 한 시립극단의 '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극 'I was here'가 펼쳐진다.

페르소나 '비밥'

◇프로그램 구성 아쉬워

브랜드 공연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비교해 인지도 면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뉴욕에서 활동중인 김영순 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초청, 화제를 모았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문화 흐름을 만날 수 있는 해외참가작이 없는 점이나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의 경우 이미 광주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 등 신선함도 떨어져 아쉽다.

또 광주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을 브랜드 공연에 추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작품 수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비밥'이나 '한여름밤의 꿈'의 경우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지난해 작품들과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올해는 지역단체의 작품수를 늘렸으며 시립예술단의 경우 정기공연을 브랜드 공연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립예술단 5개 작품을 제외한 7개 작품 공연료는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A석 1만원이며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62-670-7462, 062-613-836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광주비나리 광주판타지'

영화음악으로 뮤지컬로… 클래식과 친해지기

시립교향악단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5월2일 광주문예회관

클래식 음악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음악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 특별 음악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준비했다. 5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연주회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음악과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주는 무대다.

공연은 영화 '대부'의 주제가로 문을 열며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스타워스', '미션', '아웃 오브 아프리카', '레 미제라블' 등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음악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뮤지컬계 스타 부부 김소현·손준호씨는 유명 뮤지컬 넘버를 부른다.

두 사람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와 '오페라의 유령', '돈키호테'의 수록곡인 '지금 이순간' '이룰 수 없는 꿈' '당신이 나를 받아 준다면' 등 다양한 넘버를 솔로와 듀엣으로 함께 선사한다.

지휘는 김영언 상임부지휘자가 맡았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소현

손준호

할머니들의 '꽃같은 시절'

푸른연극마을, 5월2~3일 공연… 원작자 공선옥 사인회도

동네 '할마씨'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섰다. 조용하던 동네에 돌 깨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새끼 낳던 암소가 놀라 사산하고, 질주하는 덤프 트럭에 놀라 넘어지고, 비닐하우스에 켜켜이 쌓인 먼지와 깻잎을 먹을 때마다 바스락 거리는 돌가루에 화가난 할머니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푸른연극마을이 공선옥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꽃같은 시절<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5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옛 KBS광주방송총국).

작품은 할머니들의 다양한 사연과 싸움 과정을 놀이하듯, 해학적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광주연극제에서 우수작품상과 최우수연기상(이당금), 신인연기상(황민형), 무대미술상(정봉환)을 수상했다. 오성완씨가 각색하고 연출했으며 오설균·채희영·정이형·이행원씨 등이 출연한다.

5월 2일에는 공선옥씨가 신작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작가 사인회도 진행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10-4140-42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인 연주자들에 꾸준한 무대 제공할 것"

한정숙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신임 회장… 5월2일 금호아트홀 정기공연

1990년 출범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같은해 창립된 광주피아노듀오협회와 함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 연주단체로 현재 55명의 피아니스트가 활동하고 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22년간 모임을 이끌었던 김선자 전남대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 한정숙(57) 호신대 교수가 신임 회장을 맡으면서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피아노아카데미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연주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회원들,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신인 연주자들에게 꾸준히 무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작곡가별 테마 기획시리즈, 향토작곡가 피아노 신작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이 광주 등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서울, 특히 외국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또 새로운 피아니스트 영입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구요. 특히 4년마다 한번씩 35세 이하 젊은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작피아노 독주곡 공모가 올해 열리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임 한 회장을 주축으로 꾸리는 첫 연주회는 오는 5월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42회 정기공연이다. '현대 에튀드'라는 주제로 김연·최유진·정윤정·나원진·반수진·김현정·최선희·김형미씨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현대 작곡가인 리게티, 메시앙, 볼콤, 코릴리아노의 곡들이다. 문의 010-2012-8171.

한정숙

/김미은기자 mekim@